

특 집 디지털도서관과 전자책의 만남 : 현황과 향후 과제 ②

미래를 만드는 전자책도서관



차은숙*

전자책도서관은 도서관 기능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자책을 대출, 반납하고 예약, 연장하여 쉽고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강력한 기능을 지원한다. 이를 통하여 도서관 이용 확대는 물론 이용자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장으로써 활용된다.

도서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시대흐름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서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발전의 원동력이며,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전자책도서관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전자책으로 낮아지는 학교도서관의 문턱

초중고 전자책도서관 활용

정보통신의 발전은 누구나 쉽게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올바른 정보 이용법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컴퓨터는 게임과 채팅에 이용되는 것도 현실이다.

전자책도서관은 컴퓨터를 책보다 더 가까이 하는 학생들에게, 바로 그 컴퓨터를 통해 책을 즐겁게 찾아보고, 새로운 방법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정보 활용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전자책도서관의 기본적인 활용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한 이용 환경 속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서도 책의 열람이 가능하

* 한국전자책컨소시엄 사무국장, ebk@ebk.or.kr



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이나 컴퓨터실 등 교내에 마련되어 있는 컴퓨터와 가정에서 학생 스스로 전자책을 통한 독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초중고에서 전자책도서관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매해 학년별로 읽어야 할 필독도서, 권장도서 목록에 전자책을 일정 비율로 포함시켜 제시하여, 전자책 자체에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전자책 다독왕 선발'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의지를 북돋우고, 특정 전자책을 지정하여 '독서 퀴즈 대회'를 실시, 재미있는 책읽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집에서도 자유롭게 전자책을 볼 수 있다는 특성상 학부모들도 도서관 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책 활용 수업이나 독서 교육 지도 참여시키기도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전자책도서관의 이용자가 되어, 책읽기의 생활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전자책도서관은 일반적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 열람, 자료 검색, 대출, 반납 등을 초보적인 수준에서도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전자책도서관을 활용하는 학교 수업은 교과와 관련한 독서 자료가 전자책으로 있는 경우, 즉시 책을 찾아, 관련된 서지와 내용은 물론 본문 검색을 통해 찾고자 하는 내용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멀티미디어 전자책은 다양한 학습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교과 내용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정보검색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인터넷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에게, 전자책은 책에 대한 흥미 유발과 관심도를 높인다. 책 자체에 관심조차 없던 학생들이 전자책을 통해, 책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전자책과 종이책을 가장 많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학교도서관을 찾게 된다. 전자책으로 도서관의 문턱은 낮아지는 것이다.

전자책도서관, 함께 하는 미래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활용

현대의 도서관은 인쇄매체는 물론 영상매체, 디지털매체 등이 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곳이다. 현대 사회는 창의적 인재를 요구한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재분배하는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역사회에 탄생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이를 뒷받침하는 학습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전자책도서관의 활용은 이러한 학교도서관의 변화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 활용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로,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각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책은 1천500권-4천500권 수준으로, 장서가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도서관들은 꾸준히 전자책을 구입하고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전자책 읽기를 독려하며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도서관 운영 중 눈에 띄는 것은 대부분의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전자책도서관'이다. 어린이 전자책도서관은 주부들의 관심이 많아 인기가 높다. 다양한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로그인을 한 후 전자책 리더를 통해 바로 대출 받은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 대부분 도서관은 한 사람당 5권까지 대출해 주고, 대출 기한은 5일이다.

자신이 원하는 전자책을 검색 등을 통해 간편하게 찾아낸 후, '대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대출이 완료되는 것이다. 대출된 전자책은 '내 서재'에서, 5일간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다. 반납일에 자동반납은 물론이고, 연장도 가능하다. 전자책 예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대출 중인 책을, 해당 책의 반납 즉시 자동 대출도 가능하다.

새롭게 전개되는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지역사회의 정보센터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미래의 풍요와 희망이 있다. 